



KIA 선수들이 16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나지완의 역전 투런포를 앞세워 5-4로 승리한 뒤 자축하고 있다. KIA는 시범경기 2위를 달리고 있다. /사진:주기자 mjna@kwangju.co.kr

# KIA, 확실히 달라졌다

## 타선 집중력·기동력 살아나 시범경기 2위

### 서재응·윤석민 불안... 마운드 재건이 관건

5승 3패, 출발이 산뜻하다. 지난 8일 대전에서 한화와의 첫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17일까지 8경기를 소화한 KIA는 타선의 집중력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팀순위 2위를 지켰다. SK, 우리, LG와의 6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KIA는 부상으로 신음하던 최희섭, 서재응, 윤석민, 장성호, 김종국, 김상훈, 장문석 등이 속속 그라운드에 복귀해 짜임새를 갖춰가고 있다. KIA의 승률은 0.624로 삼성(0.667)에 이어 2위. 반면 팀타율은 0.231에 그쳐 우리(0.222)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팀 타율은 낮지만 상위권에 랭크된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경기를 운영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최희섭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업 트리오

는 폭발적인 타격으로 팀의 승리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8경기에서 KIA가 상대팀에게 뽑아낸 점수는 29점이다. 좌우-좌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 장성호, 나지완, 최희섭이 만든 점수는 10점. 최희섭이 3경기 동안 11타석에 들어서 5타점, 장성호가 2경기 2타석에서 1점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중심 타선은 과거의 팀 컬러를 되찾을 수 있을 만큼 목적해 보인다. 클린업 트리오 앞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승리를 이끌 '테이블 세터'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1, 2번 타자로 상대 내야진을 흔들 선수로는 이용규, 발데스, 이종범, 강동우 등이 있다. 이용규는 올림픽 최종예선전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선보이며 일찌감치 1번 자리를 예약해두었다. 발데스는 '무한 질주'를 하고 있다.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연속 도루도 서슴

지 않는 발데스는 현재 9개의 도루로 독보적인 1위다. 이종범, 강동우도 놓치지 않는 빠른 발과 노련함으로 '기동 야구'를 이끌 태세다. 현재 KIA의 팀 도루는 18개로 1위로 2위 SK와는 5개 차이다. 김원섭, 김선빈, 최용규 등도 빠른 발을 자랑하고 있다. 한층 빨라진 KIA의 발은 야구계의 '육상부'로 불리는 투산에 견주어도 손색없다. 부상으로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하차했던 포수 김상훈도 조범현 감독의 호된 과외수업을 받으며 한층 성숙했다. 차일목도 공·수 모두 눈에 띄게 좋아져 호시탐탐 주전자리를 노리고 있다. 문제는 마운드다. 2선발로 예정된 리마를 제외하고는 선발 로테이션이 불안하다. 용병 리마는 2경기에서 11이닝 동안 7개의 안타만 허용하며 0.82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위력적인 변화구로 타자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헵스트링, 고관절 부상으로 고생

했던 1선발 서재응과 3선발 윤석민은 아직 갈 길이 멀다. 9일과 14일 마운드에 올라 4이닝을 소화한 서재응은 18타자를 상대로 4실점 하며 9.00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윤석민도 15일 처음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5안타를 맞고 2실점 했다.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다승왕' 정민태도 당장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 팀 방어율은 3.17로 전체 3위지만 손영민, 임준혁, 고우석 같은 젊은 투수들이 들쭉날쭉한 컨디션을 보이는 것도 고민거리다. 희망은 있다. 군입대로 3년의 공백기를 가졌던 유동훈은 4경기에서 나와 4%동안 실점하지 않고 2개의 홈런을 쳤다. 대표팀의 뒷문을 단단히 지켰던 한기주도 견제하다. 지난해 부상으로 고전했던 전병두와 장문석도 마운드 올라 꾸준한 피칭으로 시즌 대비에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병현, 보스턴전 10이닝 무실점

김병현(29·피츠버그 파이리츠)이 친정 팀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10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병현은 17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시범경기에서 0-1로 뒤진 5회 초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0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5회 선발 톰 고질러니 대신 등판한 김병현은 8번 알렉스 코라에게 안타를 내주긴 했지만 나머지 타자 2명을 내야 땅볼로 처리했고, 삼진도 1개 곁들였다. 이전 2경기에서 홈런 3개를 얻어맞으며 18.0까지 치솟았던 평균자책점도 12.0으로 내려갔다. 피츠버그는 0-2로 끌려가다 6회 말 2점을 뽑아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뒤 7회 말 4점을 보태 6-3 역전승을 거뒀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김병현이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매케니필드에서 벌어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5회 구원투수로 나서 깔끔한 피칭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 이용대·정재성 "베이징 금 예약"

## 스위소펜배드민턴 세계 1위조 꺾고 우승

한국배드민턴의 '3세대 에이스' 정재성-이용대(이상 삼성전기) 조가 세계최강의 복식조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랭킹 5위인 정재성-이용대 조는 17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벌어진 2008스위소펜배드민턴 슈퍼시리즈 최종일 남자복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인도네시아의 마르키스 키도-헨드라 세티아완 조에 2-1(17-21 21-16 21-13)로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정-이 조는 그동안 '전적'으로 불렸던 키도-세티아완 조를 상대로 1세트 17-21로 패했지만 2세트를 21-16으로 따낸 뒤 3세트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은 끝에

21-13으로 승리했다. 1990년대 초반 박주봉-김문수, 2000년대 김동문-하태권 조의 뒤를 이을 콤비로 평가되는 정-이 조는 이번 3주간의 유럽투어에서 독일오픈 준우승, 전영오픈 우승에 이어 스위소펜 마저 석권, 명실공히 최강 파트너로 거듭났다. 또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이 끝난 뒤 지독한 침체에 빠졌던 한국 배드민턴은 독일오픈에서 5개 전 종목 우승을 휩쓸었고 전영오픈에서는 남자복식과 여자복식 우승에 이어 스위소펜에서도 남자복식 우승, 여자복식과 혼합복식은 3위에 오르며 베이징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 연아-아사다-안도 '여왕 3파전'

### 국제 빙상 세계선수권대회

김연아(18·군포 수리고)-아사다 마오(18-안도 미키(21·이상 일본) '피겨 3인방'이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18~23일·스웨덴 예테보리) 여자싱글 '여제'대결을 벌인다. 17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스웨덴 예테보리 스칸디나비움 빙상장.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선율이 퍼지는 가운데 김연아가 열심한 음악에 맞춰 연기를 가다듬었다. 이를 전 한국을 출발한 김연아는 16시

간에 걸친 긴 여행 끝에 예테보리에 도착해 이날 새벽 처음 빙상장 적응훈련에 나섰고, 35분 동안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맞춰보면서 컨디션을 조절했다.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은 19일 오후 5시15분부터 시작되고, 프리스케이팅은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펼쳐진다. 출전 선수 53명 가운데 쇼트프로그램 성적 상위 24명만 프리스케이팅에 나갈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대회에서 안도가 우승해 출전권 3장을 확보했고, 한국은 김연아의 동메달로 2장을 따내 김나영(18·연수여고)이 함께 나선다.

### 최경주, 신한금융과 후원 계약

신한금융그룹이 17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조인식을 갖고 한국골프의 간판 스타 최경주(38·나이키골프) 후원을 나섰다. 최경주는 앞으로 3년 골프백에 신한금융 로고를 달며 계열사 광고모델로 활동한다. 또 최경주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한국프로골프 신한동해오픈에도 출전하기로 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필러 회원권**  
최저 '특필러 회원권'에 성공회에서는 활동한 경기장 및 모이레프르티움으로 확장해간 하였습니다. 승수에 맞춰만 대한민국 최고의 거점소가 되었습니다.  
상담 문의 (062)351-0095



## 우즈 '1인 천하'

###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1위 PGA 7개 대회 연속 우승 행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7개 대회 연속 우승 행진을 벌이면서 '1인 천하'를 굳게 다졌다. 우즈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골프장(파70·7천239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0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BMW챔피언십, 투어챔피언십 그리고 타깃월드 챔피언십, 올해 뷰익인비테이셔널, 두바이데저트 클래식, 악센추어매치플레이챔피언십에 이어 7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PGA 투어 정규 대회에 포함되지 않는 타깃월드 챔피언십과 유럽프로골프투어대회인 두바이데저트클래식을 빼도 PGA 투어에서만 5연승 행진이며 2008년 시즌에는 100% 승률을 이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우승하는 우즈는 투어 통산 우승 순위에서도 벤 호건(64승)과 함께 공동3위로 올라섰다. PGA투어에서 우즈보다 더 많은 우승컵을 수집한 선수는 샘 스니드(82승), 잭 니클러스(73승) 등 두명 밖에 남지 않았다. 대회 2연패를 노리던 비제이 싱(피지)은 공동3위(7언더파 273타)에 머물렀고 세계랭킹 2위 필 미켈슨(미국)은 공동21위(1언더파 279타)에 그쳐 우즈의 상대가 아니었다.

타이거 우즈가 16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클럽에서 끝난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 후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지영 우승 눈앞에 두고 '와르르'

### LPGA마스터카드 클래식 8위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이 멕시코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스터카드 클래식 마지막 무너지며 눈앞에 있던 우승컵을 날려 버렸다.

LPGA 투어 2년차 오지영은 17일(한국시간) 멕시코시티 보스케 레알골프장(파72·6천90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무려 7타를 잃어 버리며 최종합계 2언더파 214

타의 성적을 적어내 공동 8위로 내려앉았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루이제 프리베리(스웨덴)는 보기는 1개로 막고 이글 1개,

버디 6개를 쓸어담아 합계 6언더파 210타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대만의 스타 청아나가 막판까지 추격을 벌였지만 5언더파 211타로 2위에 머물렀고 제인 박(21)이 4언더파 212타로 3위에 올랐다. 최나연(21·SK텔레콤)은 1오버파 73타를 쳐 합계 3언더파 213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